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중국의 FTA 추진전략 현황과 특징

- 중국은 전통적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EU가 아닌 개발도상국 중심의 차별적 FTA 체결을 추진
- 중국은 일대일로²⁾와 같이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EU를 능가하는 경제권 구축을 지향
- 미래 에너지 자원 확보와 공급망 구축 및 남미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FTA 체결에 주력 중
- 對중 교역구조 전환기, 중국 수출전략시 중국의 FTA 추진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글_김민준 한국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전문연구원]

(1) 중국이 체결하고 발효 중인 FTA

21세기 중국은 대외 전략을 추진하여 세계속³⁾에서 평화롭게 일어나⁴⁾ 중국의 꿈⁵⁾을 펼치고 있다. 세계 경제 일체화 흐름에 따라 중국이 체결한 FTA는 아래와 같다.



© 자료 출처 : aric.adb.org

2) 일대일로(一帶一路):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정책 슬로건

3) 세계속으로(入世): 2001년 중국의 WTO 체제 가입 후의 정책 슬로건

4) 세화평굴기(和平崛起): 후진타오(胡錦濤) 집권 초기에 천명된 정책 슬로건으로 군사적 위협 없이 평화적으로 국가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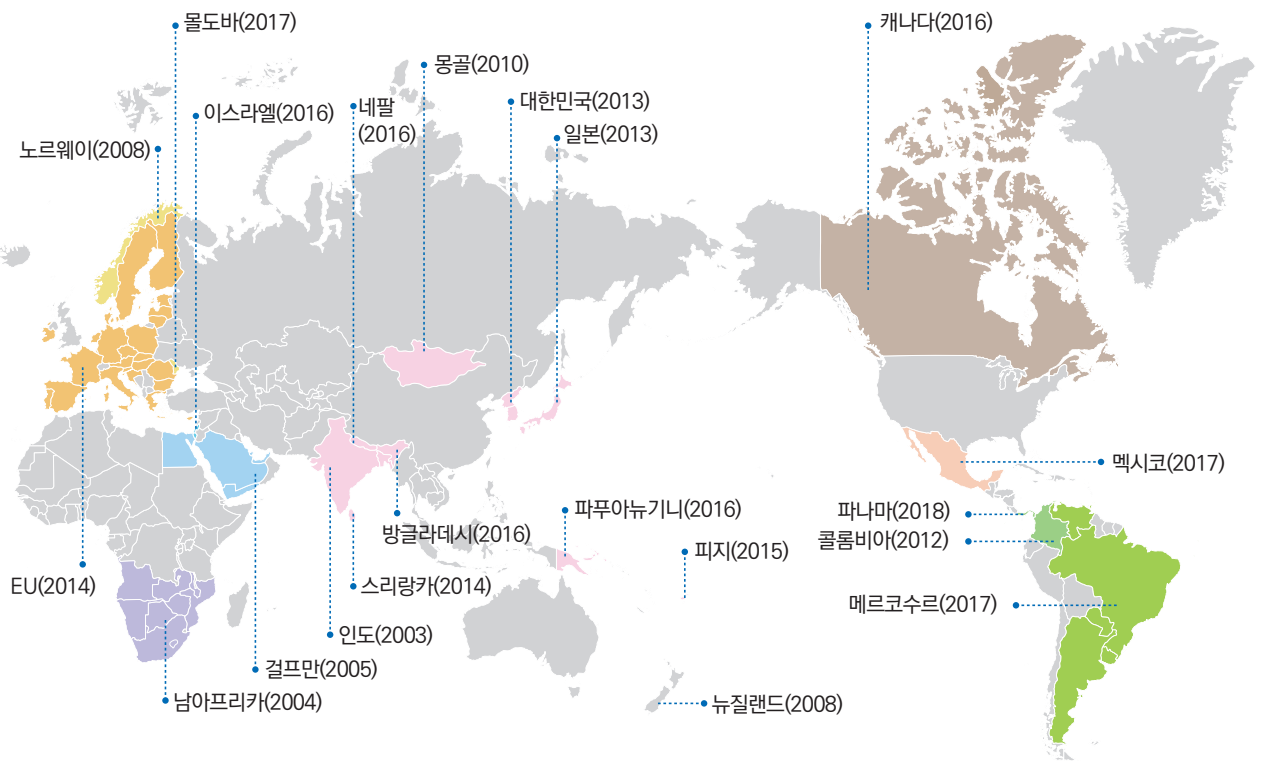
5) 중국몽(中國夢): 시진핑(習近平) 집권 초기에 천명된 정책 슬로건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와 군사 패권의 강화 등을 통해 찬란했던 옛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의미

중국이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미국과 EU 중심의 거대 경제권이 아닌 개발도상국 중심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만의 무역구조를 구축하려는 전략적인 FTA 체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이익과 외교·안보적 이익을 고려하여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기준 18개의 FTA(홍콩·마카오 제외, 24개국)를 체결하고 이행 중임이 확인되었다.

(2) 발효 예정 및 협상 중 FTA



중국은 자국에 우호적인 일반 우호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표현하고, FTA를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추진 중인 국가들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표현하며 외교 관계 격상을 통해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중국이 추진 중인 FTA를 살펴보면 발효 예정인 협정이 4개(몰도바-2017, 유라시아-2018, 세르비아-2023, 에콰도르-2023), 협상 중인 협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19개국 또는 지역과 추진 중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은 일찍이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남아프리카와 걸프만 협력회의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고 캐나다, 멕시코 및 메르코수르와의 FTA를 통해 북미·중미·남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3) FTA 외의 양자 협정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고 현재 미국과의 경쟁이 가능한 경제국가로 성장하였는데 “세계속으로” 정책은 FTA뿐만 아니라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과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 DTA)도 활발히 체결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연합,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스페인, 태국 등 총 107개(2022년)의 BIT를 시행하고 있으며, 110개(2022년) 국가 또는 지역과 DTA를 체결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자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적 환경이 조성된 중국에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FTA가 국제적 흐름으로 부상되기 전에 주로 체결된 해당 협정들을 통해 중국은 FDI 유입을 통한 자국 경기부양과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

(4) 맺음말



중국은 개발도상국과의 FTA 체결과 신흥 시장(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진출을 통해 미래 자원 공급망 구축과 판로개척을 꾀하는 추진전략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미국과 EU의 통상정책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주의 무역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EU와 모두 FTA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각국 통상정책의 특징과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3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원이었던 FDI 유입액이 330억 달러로 1993년(275억 달러)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여 중국 역시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2024년 3월 전국 양회⁶⁾에서 5%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기부양 경제정책이 결정된 만큼 최대 수출입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우리 기업들과 수출입을 가장 활발히 하는 국가 중 하나이므로 기업들은 제3국 입장에서 중계무역을 할 때 중국이 체결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를 하는 것과 같이 한-중 FTA 및 RCEP 외에 중국이 체결한 FTA의 현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중국보다 FTA 활용이 영역이 넓은 FTA 강국으로서 우리가 체결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경제와 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강점인 고급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과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바이오,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의 시장경쟁과 협력에 있어 유연하게 경제 현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양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 2개 회의를 지칭하는 말로 매년 3월 열리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